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❼ 아귀와 갈애–윤회의 실체 (1)



▶한줄요약
우리의 존재 이면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갈애(존재하고자 하는 집착과 욕망)'는 〈감로탱〉이라는 장르의 불교회화에서 '아귀'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삶 속 모든 욕망 근원 '갈애'

우리를 윤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왜 자꾸 다시 태어나는가'라는 질문이다. 윤회한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해도 되겠다. 나의 근원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존재의 비밀은 무엇일까?

기독교 · 유교 · 도교 '존재' 창조설

'나는 무엇인가' 또는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존재의 창조설 또는 근원설에 대해 대표적 종교별로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기독교의 경우,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나'는 조물주의 피조물로 간주된다. 하느님(God)이라는 창조주가 그의 뜻에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의 생명과 성품은 주님의 은총이자 은혜의 결과물이기에 주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잘 활용하여 주님의 업적을 빛내는 것이 나의 소명이자 삶의 목표가 된다. '나'라는 것은 초자연적이고 전지전능한 절대자의 창조물인 것이다.

유교의 경우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父生我身, 母鞠我身)"라는 〈시경〉의 문구를 받들어, 내 몸의 탄생의 근원을 아버지에게 둔다. 아버지의 근원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된다. "조상이 돌봐서~"라는 문구를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유교의 제사에서는 조상신을 모시는데, 여기서 조상신이란 남성(아버지)만의 계보를 말한다. 가족 구성원 중 남성 연장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이다. 반드시 남성(아들)만을 통해 해당 성씨(姓氏) 가문의 계보가 이어지기에, 여성(딸)이 태어나면 대(代)가 끊어졌다 또는 계보가 단절됐다고 간주한다.

또 동양 또는 중국 고대 사상으로 음양사상(또는 음양오행사상)이 있다. 이는 주역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론으로 기(氣) 철학에 근저를 둔다.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로서 기(氣)를 바탕에 두는데, 기에는 음(陰)과 양(陽)의 두 종류가 있다. 이것이 서로 만나면서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음양설에서는 하나의 존재, 하나의 조직, 하나의 국가, 나아가 하나의 천지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기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주범, '나의 업'

자, 그러면 불교의 경우는 어떨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중생을 창조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여타 대부분의 종교가 브라흐마 · 알라 · 하느님 등 조물주를 설정하지만, 불교는 사뭇 다르다. 초기 불교경전인 니까야에는 "우주 만물의 생성"에 대한 질문에, 붓다는 현실적인 "나의 생성"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조언을 한다. 또 "윤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라는 질문에도 "모른다"라고 답하며, 내가 '나와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환영의 원리(육근과 육경의 만남)를 통찰하라고 일축한다.

그러면, 붓다께서 보신 우리들의 참 모습,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나를 태어나게 하는 원인을 붓다의 눈을 빌려서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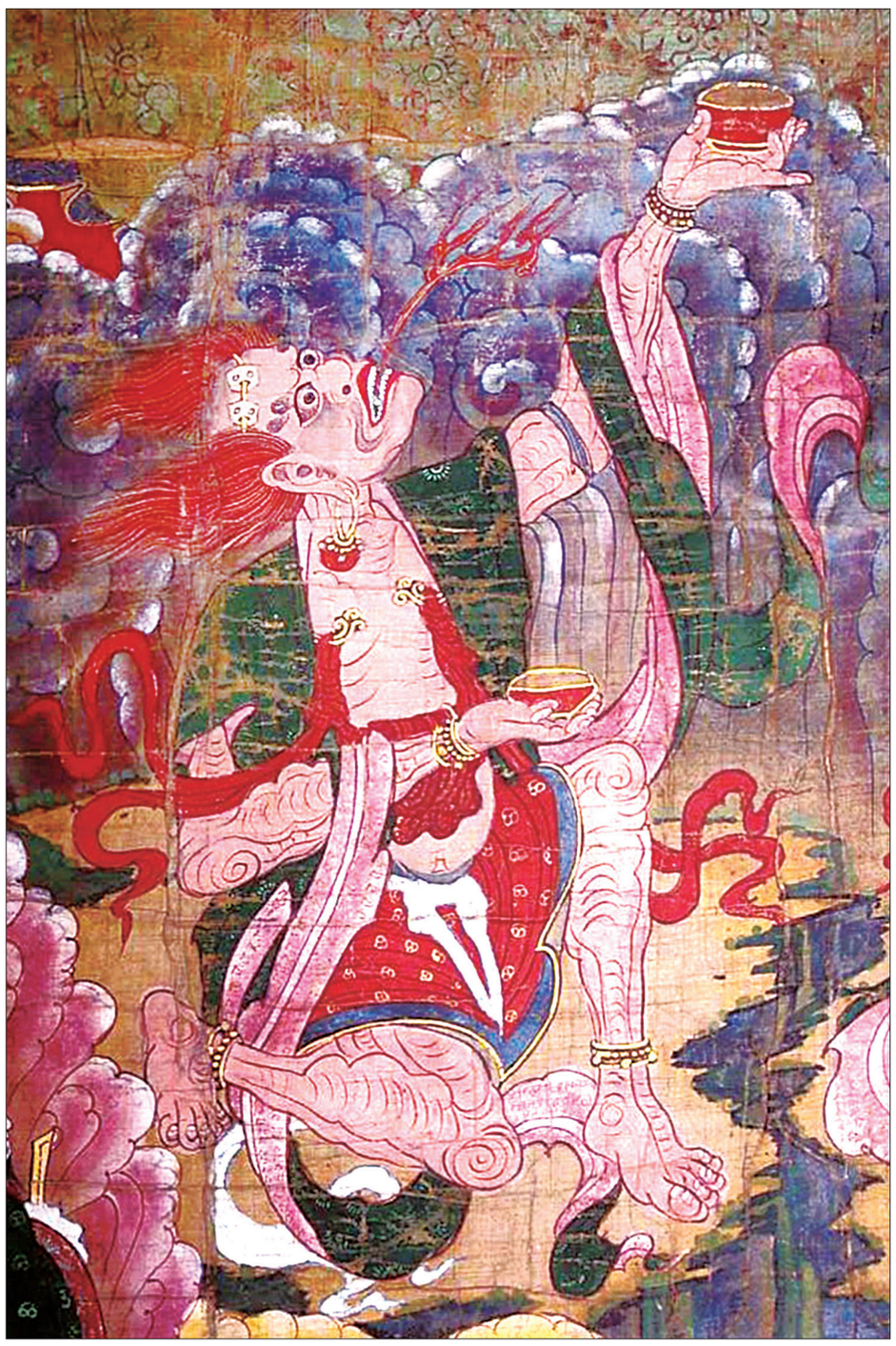
"(큰 깨달음을 얻으신 뒤) 큰 자비심이 일어나/ 다시 저 중생들을 관찰하니/ 여섯 갈래 속에서 윤회하면서/ 태어나고 죽음이 끝이 없네/ 그것은 거짓이고 견고하지 못하여 마치 파초와 꿈과 환영과 같네.(〈붓다차리타〉)"

> 붓다가 밝히셨던 윤회를 끊는 방법
> 수행 통해 무명업장 12연기로 통찰
> 12연기 과정 중 '애취–유–생' 부분
> 무에서 유형의 生 받는 결정적 대목
> 존재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 의미
> '갈애' 불교회화서 불타는 아귀 표현

붓다는 우리들이 삶과 죽음을 무한 반복하는 광경을 본다. 육도라는 여섯 갈래의 세상(지옥 · 아귀 · 축생 · 수라 · 인 · 천)에 자맥질하듯 번갈아 태어나며, 한 번 태어날 때마다 그것이 유일무이한 삶이라 매번 착각하며, 집착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이러한 끝없는 윤회 속의 중생들의 모습이 모두 제각각 천차만별임을 목격한다. 어떤 이는 잘생겼고 어떤 이는 못생겼고, 어떤 이는 부자이고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다음 생에 지옥 세상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다음 생에 동물 세상에 태어나고…. 이에 붓다는 윤회의 원인과 그 양태의 다름에 대해 알기위해, 통찰지를 더욱 깊고 미묘하게 키워서 꿰뚫어 본다.

"이어 한밤중에 천안(天眼)을 잇따라 얻어/ 일체 중생을 통찰하기를 거울 속 모양 보는 듯하니/ 중생의 삶과 나고 죽음, 귀천과 부귀는/ (각 중생들이 스스로 지은) 청정업(淸淨業)과 청정하지 않은 업(부정업不淨業)/ 그것에 따라 고락(苦樂: 고통과 쾌락)의 과보를 받네."



그림① 존재하고자 하는 '갈애'는 불타는 '아귀'로 표현된다. 〈해인사감로탱〉의 부분, 1723년 조성, 합천 해인사 소장.

12연기 과정 속에 치솟는 '갈애'

즉, 자신이 사는 동안 청정업과 부정업(또는 선업과 악업)을 얼마나 어떻게 지었냐는 것에 따라, 지은 대로의 과보의 생(生)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쁜 업(惡業)을 지은 이를 관찰하니, 나쁜 갈래(惡趣)에 태어나고, 좋은 업(善業)을 지은 이는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한없는 고통을 받지만 … 업행(業行)은 그를 결코 죽게 하지 않는다." 끝없는 윤회의 반복으로 나를 굴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나의 '업과 업의 작용(업행 또는 업력)'이었다.

'업과 업력의 마음 덩어리'를 업장 · 업식 · 영가 · 영혼 · 무의식 · 아트만 · 말라식 등 분야와 쓰임새에 따라 다양하게 부른다. 몸(육체)이 죽어도 죽지 않는 이 마음 덩어리! 바로 이것이 중생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주범이었다. 붓다는 궁극의 통찰지로 이 마음 덩어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꿰뚫어 보는데, 급기야 그것이 총 12단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한다. 마음 덩어리(무명업장)가 12연기(緣起)로 해체되어 그 실체가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무명업장이 이렇게 완전히 분해되니, 공(空)이 드러나고, 드디어 윤회는 멈추었다.

불교는 붓다가 밝혀 놓은 윤회 끊는 방법(통찰지를 키워 → 12연기를 보고 → 자신의 윤회를 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찰지를 키우는 과정을 '수행'이라 하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무명업장을 12연기로 '통찰'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붓다가 통찰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과정'인 '12연기'의 내용을 보자. '(1)무명 → (2)행 → (3)식 → (4)명색 → (5)육처 → (6)촉 → (7)수 → (8)애취(愛取) → (9)유(有) → (10)생(生) → (11)노(老) → (12)사(死)'의 일련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의 실체였다.

'나는 살아야 한다!' 존재에 대한 '갈애'

12단계의 과정 중 특히 '(8)애취(愛取) → (9)유(有) → (10)생(生)'의 부분을 주목해 보자. 그 이유는 이 부분이 무형(無形)에서 유형(有形)의 생을 받는 결정적인 대목이기 때문이다. '애취'는 '갈애'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존재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자 집착의 마음을 말한다. 재생연결식(이번 생의 마지막 의식이 다음 생의 첫 의식과 연결되는 고리의 과정) 때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강렬하게 일어나는 에너지가 갈애이다. 다시 몸 받고 싶다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불같이 일으켜, 결국 나를 다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양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활동 밑에는 거의 언제나 이 존재에 대한 갈애가 깔려 있다. 사람은 살아가는 찰나를 거의 모두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갈애가 시키는 대로 한다.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계속 살고 싶은 욕망은 다른 모든 욕망의 원천이자 밑바탕 흐름이다.(구나라뜨라,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가-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 고요한 소리, 1998)"

우리의 존재 이면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갈애(존재하고자 하는 집착과 욕망)'는 〈감로탱〉이라는 장르의 불교회화에서 '아귀'의 모습으로 표현된다.(그림①)

그 에너지의 모습 그대로 시뻘겋게 훨훨 불타고 있다. 굶주린 허기를 달래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아귀(갈애)는 불탄다. 타는 목마름과 움켜쥐려는 집착으로 눈망울은 튀어나올 듯하고, 크게 벌린 입에서는 화염을 분출한다. 발우를 든 손은 공양단을 향해 애타게 뻗어 있고, 온 몸은 불타고 있다. 구나라뜨라는 위의 저서에서 "(존재하고 하는) 갈애라는 강력한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소멸될 수 없다. 사람이 죽는다 해도 함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현대불교신문
NAVER 현대불교신문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12